

	보도자료	2026. 4. 10.(금)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이석준	☎ 760-75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열대거세미나방 올해 첫 발견·최근 5년 중 가장 빨라

-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성충 확인...전년 대비 14일 빨라 -
-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 예찰 강화 및 신속 방제 당부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올해 처음으로 비래해충인 ‘열대거세미나방’의 도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.

○ 제주대학교에 따르면, 지난 7일 한림읍 수원리에서 올해 첫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됐다. 이는 지난해보다 약 14일 빠른 것으로, 최근 5년간 가장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.

* 첫 발견일: '21) 4. 24., '22) 5. 17., '23) 4. 18., '24) 4. 11., '25) 4. 21.

○ 열대거세미나방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비래해충으로, 옥수수과 기장 등 약 80여 종의 작물에 피해를 준다. 성충이 산란한 뒤 부화한 애벌레가 작물을 가해하며, 통상 피해 발생 시기는 5월 상순으로 예상된다.

* 비래해충: 기류를 타고 외국에서 국내로 날아 들어오는 나방류 등의 해충

○ 다만 올해는 발견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피해 발생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□ 열대거세미나방을 비롯한 비래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.

○ 특히 알에서 부화한 어린 애벌레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으며, 발생 초기 적기에 방제할 경우 피해율은 약 1%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. 반면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율이

10~50%까지 증가할 수 있다.

- 애벌레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- 이와 함께 농업기술원은 현장 예찰을 강화해 비래해충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.
 -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,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62개 지점에 트랩을 설치해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예찰을 추진한다.
 -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자료 배포, 휴대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비래해충 확산 방지와 방제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이석준 지방농촌지도사는 “열대거세미나방을 포함한 멸강나방 등 비래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할 경우 농업재해 대응팀(☎064-760-7522) 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”며 “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 예찰 강화와 신속한 방제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